

1. 지역별 문화예술 우수사업 사례

김설하 ■ 감자꽃 스튜디오 연구실장

1 [공간/ 시장] 대인시장

1. 개요

- 가. 공간 : 광주광역시 대인시장(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310-9)
- 나. 주체 :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및 대인시장문화예술협회
- 다. 목적 :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재래시장, 작가와 상인과 시장을 찾는 손님이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미래형 공간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예로부터 대인시장은 큰 규모와 역과 터미널에 인접한 위치조건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명소였으나, 역과 터미널의 이전으로 그 명성과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음.
- 나. 시작 : 2008년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행해진 ‘복덕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등지를 틀기 시작했고, 이에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면서 지금의 대인예술시장이 탄생함.
- 다. 주요 운영 시설 : 작업실, 전시실(갤러리) 등 시장 내 다양한 예술시설 공존.

3. 프로그램

- 가. 게릴라 공연 : 광주 지역의 인디밴드와 대학교 그룹사운드의 길거리 공연.
- 나. 만물예술마차 : 일반시민들과 작가 및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작가들은 작품을, 상인들은 상품 및 먹거리를, 시민들은 중고품을 판매함.
- 다. 한 평 갤러리 : 대인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판매 및 예술인을 위한 후원행사 개최

4. 시사점

- 가. 복덕방 프로젝트 : “예술은 전시가 아닌 삶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 지역 작가들이 복덕방 중개인을 자처하고 시장의 빈 점포를 찾아내 미술가, 기획자, 인문학자, 문화예술인이 작업실과 사무실을 열도록 안내.
- 나. 대.소.쿠.리 :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의회로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인시장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계 종사자들의 순수 자발적 모임. 이들에 의해 시장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② [공간/ 양조장] 인천 스페이스빔

1. 개요

- 가. 공간 : 인천광역시 스페이스빔 (인천광역시 동구 창영동 7번지)
- 나. 주체 : 스페이스 빔 운영위원회
- 다. 목적 : 중앙 집중적 문화예술구조 속에서 지역문화의 독자적 정체성 마련, 공공성·지역성·자율성을 모토로 하는 대안적 미술 활동 공간, 지역의 미술 및 문화·예술 담론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시스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열려진 만남과 생성적인 소통 주선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1995년 ‘지역미술연구모임’으로 출발하여 스터디 진행 및 미술전문지 발간, 전시기획 등의 활동을 벌여오던 중 상시적인 논의와 실천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1월 인천 구월동에 개관.
- 나. 시작 : 이후 2007년 9월 근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동구 창영동 배다리 일대에 위치한 옛 인천양조장 건물로 이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의 문맥을 고려한 다각적 활동 속에서 바람직한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하고 있음.
- 다. 주요 운영 시설 : 고두밥실(업무공간), 주모실(주방), 발효실(프로그램 진행), 숙성실(소모임, 자료실), 시음실(전시공간), 우각홀(발표공간) 등

3. 프로그램

- 가. 국내/ 국제 레지던스 : 예술가들의 보다 실험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창작공간과 일정 체류비 및 창작비 지원.
- 나. 신진작가 전시 및 특별기획 전시 : 레지던스 입주 작가 및 신진작가들의 창작품 발표·전시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지역민과의 소통 시도.
- 다. 아카데미 : 지역의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회화, 소묘, 공작 등 다양한 예술 강좌 운영.

4. 시사점

- 가. 주요 운영 시설 : 원래 ‘양조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 이를 예술 활동 과정으로 연결시켜 각 공간마다 적절한 명칭과 용도를 부여하여 활용(단 과거와 실제의 사용 용도와는 다름).

③ [공간/ 정미소] 진안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1. 개요

- 가. 공간 : 진안군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전북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91-1)
- 나. 주체 :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운영회
- 다. 목적 :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정미소를 새롭게 복원하여 문화체험공간, 전시공간 등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함.

2. 공간의 특징

- 가. 배경 : ‘정미소’는 마을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경제적 효용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근대적 경험의 장임.
- 나. 시작 :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정미소를 보존하고 여기에서 농민들의 삶의 이야기, 생활사들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펼쳐 보고자 하는 사진작가 김지연(현 대표)의 개인적인 취지에 의해 설립.
- 다. 주요 운영 시설 : 기계실, 전시실, 체험학습장 등

3. 프로그램

- 가. 체험학습 : 정미소에 대한 향수를 가진 어른 및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미소 체험학습’과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사 체험학습’ 운영.
- 나. 전시 : 정미소를 주제로 한 기록사진 및 영상물 전시.
- 다. 주말장터 :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 호박고구마, 수수, 찹쌀 등 판매.
- 라. 기타 행사 : 이벤트 성격의 정기적 정미기계 가동, 사진교육 및 공모전.

4. 시사점

- 가. 계남정미소는 마을 공통의 경험과 기억을 나눌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공동체박물관’이란 명칭을 붙임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도 이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주민참여/ 소규모 문화예술 모임]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1. 개요

- 가. 사업 : 서울특별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마술소)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마을’(2012년 4월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12년 10월 민관협력형 모델로 송파·도봉·금천 등 3곳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주민자율형 모델로 20개소가 선정됨.)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 라. 대상 : 3명 이상의 주민 또는 주민단체(자부담비율을 최소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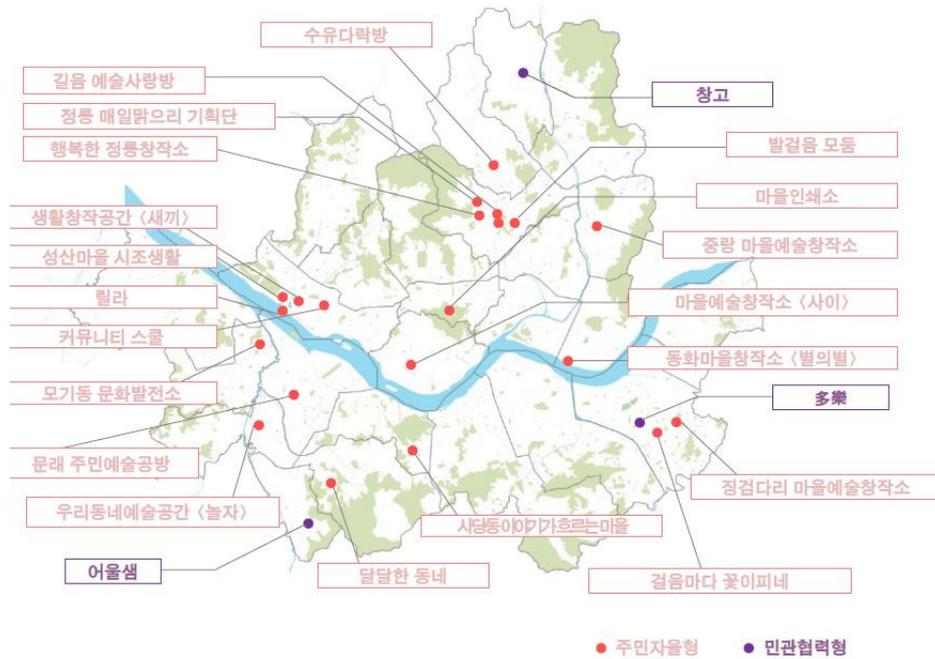
2. 사업 특징

- 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해 추진됨. 전문예술이 아닌 생활형 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지속성)의 4개 원칙을 조성 및 운영의 원칙으로 함.
- 나. 크게 민관협력형(자치구와 지역전문가로 T/F를 운영하고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주민자율형(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다.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이외에 마을예술창작소 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지원, 마을예술창작소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마을공동체의 활동 욕구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사업추진절차]



[2013년 선정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23개소)]

- 가. 공간구성 : 2013년에 조성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23개소 중 전용공간이 있는 곳이 18개소, 네트워크형이 5개소, 공간 규모는 29~524㎡로 조성.
-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강습형에 공방형, 동아리형, 지역형 등이 결합한 형태가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장르별로는 공연 및 미술 등 기존 예술장르에 생활창작이 결합한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총 13억원 정도(2013년)가 투입, 약 150여 명이 운영인력으로 참여함. 대부분의 마을예술창작소는 운영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를 구성, 주요 결정이 이를 통해 이루어짐.

4. 시사점

- 가. 마을예술창작소간 네트워크 운영체계 구축 지원 : 연합 워크숍, 운영자 모임, 경진대회 등 마을예술창작소의 현안과제,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 제공
- 나. 마을예술창작소 활성화 지원 : 평가 및 모니터링, 멘토단 운영, 수익상품개발 등 자율적 마을활동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의제를 먼저 찾아서 마을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다.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활동육구 단계에 맞는 지원 : 민관협력형은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율형은 성숙단계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

⑤ [주민참여/ 지역사회 예술가 네트워크] 성북예술창작센터

1. 개요

- 가. 사업 : 서울시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다. 주체 : 서울특별시 후원
- 라. 대상 : 서울문화재단 위탁 운영

2. 사업 특징

- 가. 2009년 11월 (구)성북구보건소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준공 후 같은 해 7월 28일 개관함.
- 나.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새로운 대안공간을 목표로 하며, 시민 문화예술교육 인큐베이팅을 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가. 공간구성 : 5층(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성북예술다방·스튜디오·음악실(공감)·갤러리(맺음)·스페이스(소통, 치유, 나눔)·하늘공방·내부순환티밭 등으로 구성
-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입주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주예술가를 위한 직·간접적 홍보지원 서비스 제공 등
-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현재 7팀의 입주 작가 및 단체(공연예술단체, 시각·설치작가와 예술치료 작가 등)가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없음. 한 해 운영비는 약 5억원임(2012년 기준, 전액 서울시 지원)

4. 시사점

- 가. 과거에는 신체를 치유하는 기능의 보건소였으나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정신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주민개방공간으로 이용됨. 사회에서 외면 받는 소외계층을 문화와 예술로 치유하고 입주 예술가와 성북구민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예술문화를 만들고자 함. 예술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나. 입주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커뮤니티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나의 프로그램 당 10~15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함.
- 다. 입주 작가 및 단체들은 커뮤니티 아트를 기획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다른 주제에 맞는 예술가를 선정함.

⑥ [주민참여/ 예술가-마을주민 협업] 제주문화재단 빈집프로젝트

1. 개요

- 가. 사업 : 제주 문화기획지원 사업-빈집프로젝트
-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삼달리마을, 하례리마을
- 다. 주체 : 제주문화예술재단
- 라. 대상 : 예술인, 마을주민

2. 사업 특징

- 가. 제주도 내 읍면 지역에 방치된 빈 집·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나. 레지던시 작가들은 본인들의 작품 활동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에게 체험·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3. 사업 내용

가. 공간구성

- ① 삼달리마을 : 감귤창고와 유희공간을 <삼달리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따로 떨어져 있는 1층 건물을 각각 레지던시 공간(쉼)과 전시실(시선)로 구성,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있고 프로그램도 진행함.
- ② 하례리마을 : <꿈꾸는 고물상>은 2층 집을 리모델링한 창작 공간 ‘고물창고(작가들의 숙소)’와 감귤창고를 리모델링한 체험·참여 공간 ‘보물창고(주방, 스크린, 빔 프로젝터, 피아노, 테이블 및 의자 등)’ 두 개의 동으로 구성, 텃밭 ‘꿈꾸는 이랑’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수확물을 나눔.

나. 프로그램 및 콘텐츠

- ① 삼달리마을 : 레지던시 작가들의 개인작업과 지역주민들과의 커뮤니티프로그램(감물염색을 통한 <일복 만들기>, <삼달리 농부, 화가가 되다>, <슬기 어린이집 방문 체험> 등) 진행. 부녀회 15명, 어린이집 20명 정도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2명의 새로운 주민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② 하례리마을 : <꿈꾸는 고물상(since 2012)>은 세 쌍의 문화이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명은 영상 제작과 목공, 공예 작업 등 취급 예술장르가 각기 다름(월 1회 진행하는 ‘고물데이’는 마을주민들로부터 고물을 받는 날이며, 매달 다른 주제(종류)의 고물을 모아 창작 재료로 유용하게 쓰임). 정기적으로 베틀시장, 뽕굴뽕굴 영화상영회와 일회성 기획전시 및 공연 등을 개최함.

다. 조직·인력·예산 운영 : 사업주체는 작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나 예술작가 개인이어야 하고, 반드시 입주 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기획(프로젝트 추진 및 지원행정담당) 가능자가 있어야 함.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단위의 농·어촌 마을(법정 ‘리’ 단위)이며 반드시 마을(리) 단위만 지원함. 제주문화재단은 2011과 2012년 제주 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을 공모해 각각 5개 프로그램을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5팀 중 빈집프로젝트는 한 팀만 선정됨. 2011년 첫 번째로 미술 창작 전시실 삼달리마을(지원금 : 9천만 원)이, 2012년 두 번째로 공연 창작 스튜디오 하례리마을(지원금 : 1억 원)이 지원됨.

4. 시사점

- 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재생계획과 연계한 상승효과를 유발함.
- 나.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농·어촌 ‘리(里)’ 단위 마을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에게는 공간을, 마을주민에게는 문화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함.

⑦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상생천년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원주 매지농악(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8호)
- 나. 장소: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원주시 문화유산
- 다. 주체 : 강원도 원주시/ 원주매지농악보존회
- 라. 목적 : 활기차고 같이하는 즐거움이 있는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통해 창의적 콘텐츠를 개발. 연희농악, 두레농악, 축원농악, 제의농악의 근본정신인 두레와 품앗이의 정신을 매지농악의 핵심가치임을 깨달아, 생생한 기운과 복과 덕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상생천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매지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 3리 회촌 마을에서 6.25 전후 5월 단오제에 단골무당들이 굿을 하고 풍물을 치며 제를 지내고 놀며 지내던 성황제를 이어와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생기복덕한 사람을 제주로 하여 지내는 단오제에서 유래되었음.
- 나. 고장의 옛 풍물 본래의 소박함을 원형대로 잘 보존한 전형적인 두레풍물로 축원, 오락, 두레를 위해 주로 연주되었으며,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

3. 프로그램

- 가. 생기복덕 사계절 마을 축제/ 문화재 도우미 운영
- 나. 원주 생생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
- 다. 얼라이브(alive) 생생생 금요공연

4. 시사점

- 가. 교육, 공연, 체험이 모두 가능한 ‘농악’의 특성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다양하게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지역의 주민들을 문화재 사업 도우미로 양성하는 ‘문화재 썩썩 도우미’를 운영함.
- 나. 마을 성황당과 관련된 제의 농악, 농사력에 맞춘 두레농악, 지신밟기 등 축원농악, 연희농악 등의 농악들을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의 싸움과 경쟁, 화합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일상과 연관시켜 풍성한 내용으로 발전시킴.

⑧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횡성회다지소리 생생체험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횡성회다지소리(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 나. 장소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정금민속관
- 다. 주체 : 강원도 횡성군/ 횡성회다지소리 전승보존회
- 라. 목적 : 강원도 무형문화재 횡성회다지소리 체험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장례문화를 보존하고, 회다지소리의 계승 발전 및 전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상주의 슬픔을 달래주는 한편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민요로, 조상들이 지녔던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드러내어 해학적인 가사가 포함되기도 함. 독특한 기능 민요임.
- 나. 횡성회다지소리는 장례행사 때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회(灰)를 섞은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로, 느린 가락으로 시작되어 점차 빨라지며 후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는 식으로 변화됨.

3. 프로그램

- 가. 횡성회다지소리 상설체험
- 나. 횡성회다지소리 문화학교 운영

4. 시사점

- 가. 오늘날에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생기고, 병원 등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간소화되었지만, 고인돌부터 시작하여 여러 역사 유적 유물을 감안할 때, 예부터 조상들은 죽은 자를 배웅하는 장례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나. 이러한 장례의식에서 불린 민요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무덤을 밟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렀던 회다지소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큼.
- 다. 횡성회다지소리는 그 자체로 잘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죽는 것’은 무엇인지, 장례 의식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와 제공하는 문화재로서 의미를 가짐.

㉑ [전통 문화 예술/ 공동체] 진도 북놀이 생생체험! 북 페스티벌과 만나다

1. 개요

- 가. 전통문화예술자원 : 진도북놀이(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8호)
- 나. 장소 : 세방낙조, 향토문화회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북놀이민속전수관
- 다. 주체 : 진도군/ 진도북놀이보존회
- 라. 목적 : 진도북놀이 보존·전승, 마을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활용의 활성화와 진도의 브랜드화.

2. 전통문화예술자원의 특징

- 가. 풍물놀이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놀이로 소리와 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구를 치듯이 다양한 기법으로 연주를 하며, 동시에 화려하고 뛰어난 춤사위도 더해짐.

3. 진행 프로그램

- 가. 지는 해! 노을! 생생 북놀이!
- 나. 토요일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 다. 진도 북 페스티벌!!
- 라.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4. 시사점

- 가. 매주 토요일마다 세방낙조에서 오후 시간에 진행된 <지는 해! 노을! 생생북놀이!>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도 북놀이 전수 조교자, 이수자, 보유자가 직접 시연을 하고, 북놀이를 배워보며 진도 북놀이의 가락과 춤사위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임. 세방낙조 노을이라는 마을의 자연자원 속에 전통문화예술자원을 접목시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음.
- 나.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향토문화회관에서 진도 북놀이 공연을 관람하고 북놀이를 체험하는 <토요일민속여행 북놀이 생생 체험!>, 진도에 있는 세 곳의 북놀이 전수관을 활용하여 1박 2일 프로그램을 구성한 <진도북놀이 민속전수관 1박2일>, 서울에서부터 진도까지 전국의 모든 북놀이들이 모여서 공연을 펼친 <진도 북 페스티벌> 등은 북놀이라는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을 스스로 즐기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함.